

남원시, 마을공방 육성 공모 선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23개 소가 공모하여 7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남원시는 국비(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산동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유희시설인 토바이다지를 리모델링해 마을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옷칠, 목공예 장비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 내 거주하는 옷칠, 부채, 한지공예 분야의 명인들이 참여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완식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가방틀 목공 이용방 사업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모이는 행복한 수레방을 내실있게 운영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소시지, 전 세계 무대 '우뚝'

독일 IFFA 식육·육가공박람회 17개 메달 아시아 단일업체 중 최초·최고 기록 달성

임실N치즈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가공·개발한 소시지가 전 세계 무대에 '우뚝' 섰다. 임실군은 2019 독일 IFFA 식육·육가공 박람회'에서 지역 식품가공업체인 (주)친한 F&B(대표 정승관)가 처음 출전한 가운데 아시아 단일업체로는 최초·최고인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독일 IFFA 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육·육가공 산업 전문 박람회로서 3년마다 개최되며, 가공과 포장, 판매에 이르는 식품산업의 공정에 대한 최신제품과 장비기술력을 선보이는 가장 권위있는 국제대회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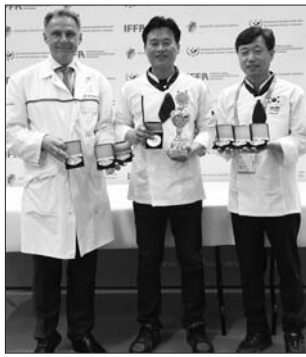
올해에는 49개국 1,036개 업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142개국이 참가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주)친한 F&B는 5개 분야 중 비어컨(담어리가 든 햄), 플라쉬쉬켄(살고기 햄), 뷔어스트켄(비엔나 소시지)등 3개 분야 22개 제품을 출품해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7개, 동메달 3개 등을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특별상 트로피까지 수상하여 세계적인 대회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다.

수상내역을 보면 금메달에는 임실청량 닭가슴살 플라쉬쉬 소시지, 임실매실소시지, 임실청량소시지 등 임실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이 저력을 과시했다.

은메달 역시 임실치즈고추장 플라이쉬 소시지, 임실 할로미치즈소시지, 임실 매실비어컨, 임실치즈고추장



소시지 등 7개 제품이, 동메달에는 임실 할로미치즈 비어컨 등 3개 제품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 100여명의 심사위원이 색상, 맛, 조직감 등을 평가한 가운데 (주)친한 F&B는 아시아 업체 중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다. (주)친한 F&B는 임실N치즈 10%를 함

유한 수제 소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구워먹는 치즈 소시지로 특허를 획득하였고 마켓컬리 외 다수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임실N치즈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업체이다.

정승관 대표는 "세계적인 식육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수제 육가공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민 군수는 "전통적인 권위가 있는 국제 박람회에서 임실N치즈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소시지가 전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석권해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게 돼 무척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치즈의 본고장인 임실N치즈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판매·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매아리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순창군이 최근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미세먼지 마스크 4,500여개의 보급을 완료했다.

보급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이며, 1인당 10매씩이다.

최근 인종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사법기관에 적발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검증된 제품으로 선정했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미세먼지가 군민 건강을 위협하며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취약계층인 영유아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사업비 3,900만원을 투입해 공기정화기 60여대를 보건의료원 등 6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29일부터 순창 택시기본요금 4000원

전북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 결정 따라 기존 3500원에서 500원 인상

순창군이 2013년 이래 동결된 택시 요금을 전북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기본요금(2km)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14.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 결정에 따라 거리운임(2km이상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0원, 시간운임(15km/하이)은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0:00~04:00)과 시계의 할증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공차구간 및 비포장도로를 고려한 복합할증률은 기존 63%에서 60%로 변경 적용된다. 기존에는 호출요금이 중도하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도내 타시·군과 동일하게 1회 호출 시 1,000원을 전면 적용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택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 순창군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 증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코자 이번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내 최장 270m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 위용 드러내다

내년 3월 본격 개통



순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체계산 출렁다리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2억여원이 투입되는 순창군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체계산 중턱 75~90m지점에 270m 길이로 무주담 현수교로 조성중에 있는 출렁다리는 지난해 7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 현재 대부분의 모습이 드러나며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출렁다리 나뭇잎이 15m로, 이는 아파트 5층 높이에 해당돼 도시시 관광객에게 아찔한 스릴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스릴을 느끼기 위해 찾는 젊은 관광객들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출렁다리를 비롯해 산책로, 어드벤

처 전망대, 주차장(500여대), 농산물 판매소 등은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이면 본격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군은 체계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순창 적성 들녘에 팝아트를 접목해 유색비료 경관조성에도 나서며, 출렁다리에서 보이는 전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체계산 출렁다리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군은 체계산 출렁다리가 무주담 현수교로 국내 최장거리를 자랑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 고랭지에 자라서 맛이 '일품'

남원 윤봉읍 여름 파프리카 수확 '한창' ... 소비자 인기

남원시 윤봉읍 지리산 고랭지에서는 여름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이다.

윤봉 지리산 파프리카는 지난 2월 정식에 연달까지 수확량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지리산 기슭 고랭지 기후특성으로 아삭아삭한 식감과 맛이 좋고 저장기간도 길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윤봉 지리산 파프리카는 올해 50농가가 30ha를 재배 3,600여톤을 생산해 98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에 30억원 이상을 수출해 남원시 수출농산물 단일품목 1위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 현재 5kg과 3kg에 각각 2만원과 1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파프리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시설원에 첨단시설 하우스에서 온·습도 조절과 청문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을 연계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윤봉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전량 공동선별을 거쳐



유통을 일원화해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식품 부로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전문생 산단지에서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강조 원예산업과장은 "시설원예현대화를 통한 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화품목육성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 연간 1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름재배 주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일자리 협력망 강화 간담회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7일 남원시 여성문화센터에서 일자리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업체 간담회 및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만두 제조업체인 (주)지엠에프를 비롯해 27개 업체가 참여, 기업체 대표(인사담당)와 취업상담사간 구인 및 구직정보를 교류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 설명과 직업교육훈련 관련 일자리 협력망 회의 및 차년도 직업훈련 개설 희망과정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의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으로 멀티사무원, 실버복지실무자 양성 교육을 각 2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수료 후 취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장중석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교육체육과장)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출산, 육아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